



책 놀이 터 작은 도서관

#경기도 고양시 #인건비, 임대료 지원

‘책으로 노는 도서관’,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사실 2005년, 처음 시작할 때의 이름은 ‘어린이도서관 책놀이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된 아이들이 “우리는 뭐냐?”고 묻더군요.

그 마음을 담아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놀이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고 또 묻더군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가장 큰 변화는 월말마다 있었던 두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월말이 되면, 인건비를 먼저 넣고 모자란 돈을 채워 월세는 며칠 뒤에 넣어야 하나, 아니면 월세를 먼저 넣고 모자란 인건비를 여기저기서 긁어모아야 하나 나름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책놀이터 도서관은 두 명의 반상근 지킴이 선생님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적지만 매달 인건비를 주고 고정된 사람이 도서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13년 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후원도 줄어들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들은 늘어나면서 인건비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물론, 일시적 지원이라 지원이 끝나면서 다시 힘들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잠시나마 돈 걱정을 하지 않고 도서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작은도서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작은도서관이 활기차게 움직이느냐,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대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지원 사업이나 보조 사업에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 작은도서관에 인건비와 월세가 지원되면서 작은도서관 인력구조에 대해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은 긴급지원119를 통해 인건비와 월세로만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용자와 주민들 반응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월세와 인건비가 지원되면서 관장의 자비 부담이 줄어들고, 개인 사비를 털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받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던 지킴이 선생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마지막 주마다 웃고 행복했습니다.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인데도 괜히 마음이 불편하던 선생님들도 활짝 웃는 시간들이었고, 월세 걱정을 덜어서 그 비용을 다르게 쓸 수 있던 것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도서관 인력구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진지함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책놀이터 작은도서관은 13년 동안 유지해온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서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할 만큼 내용이 숙성되지는 못해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만, 지금껏 사립도서관이면서도 ‘공립도서관’처럼 운영해오던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는 의견만 전합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어쩌면 더 자유롭고 편안해야 할 민간작은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이라는 틀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즐겁고 자유롭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도서관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더불어 만들었느니 내려놓을 궁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주먹을 쥐고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다른 걸 집을 수 있다고. 민간작은도서관 사람들인 우리가 스스로 주먹만 쥐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더라구요.

